

전일적 실존의 지혜 - 원자과학자협회 업적을 기리며

The Wisdom of Holistic Engagement Honoring the Enduring Legacy of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26.6.29.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 발표 행사 축하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 기관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우선, 올해 수상 기관으로 선정된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원자과학자협회에 경희학원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의 노고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30여 추천 기관과 인사 여러분.

선정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오랜 토론과 숙의 끝에 최종 후보를 경희학원 이사회 의제로 상정해 주신 이리나 보코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선정위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원평화상을 위해 항상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북미주 미원평화상 후원재단 노상석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

조병태 회장님,

경희국제재단 안병돈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

재단 관계자 여러분이 서울과 시차에도 불구하고 웹캐스트를 통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경희 구성원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대학·의료기관·사이버대학·병설학교 기관장과 교무위원 여러분,

구성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를 위해 많은 분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추천과 선정 절차를 이끌어 주신 미원평화학술원 김원수 상임고문님,

문명원 관계자 여러분,
법인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희학원 이사회 결정

지난 4월, 경희학원은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 기관 심의·의결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원자과학자협회를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 기관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희학원은 이 결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0여 년, 협회는 과학적 통찰과 공적 책임을 바탕으로 인류가 대면한 실존적 위기를 세계에 알려 왔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인류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사회는 협회의 유서 깊은 헌신과 공적 기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사회를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협회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를 자정 85초 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구 운명의 날 시계가 시작된 후 자정에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인류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의미는 지난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947년, 지구 운명의 날 시계가 처음 발표됐을 때는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1953년, 수소폭탄 실험이 단행되고,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되던 시기엔 자정 2분 전까지 다가섰습니다.
냉전 종식 후엔 자정 17분 전으로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잠시나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다.

핵무기 고도화와 확산, 지구적 핵전략 망 구축은 멈추지 않았습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후 위기와 생물권·환경 훼손의 위기는 깊어만 갑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은 최첨단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 실존의 미래를 위협할 파괴적 과학기술로 오용될 소인(素因)을 안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협회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를 ‘분’이 아닌 ‘초’ 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긴박성을 더 분명히 알리는 조치로 생각합니다.
올해 공표된 자정 85초 전.
역사상 가장 절박한 시간대.

그 위기의 긴급성을 외면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일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전례 없던 실존적 위협의 실상을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엄중한 현실을 인류가 함께 직시하자는 메시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 공적 실천을 촉구하는 호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원자과학자협회의 가장 큰 공적과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오늘의 현실을 ‘상호 연결된 복합위기(complex and interconnected existential risks)’로 진단합니다.

인간이 만든 자연 재앙과 성장 신화를 이어가는 지구 산업문명의 질주.

이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역학.

이 오랜 현실의 구조적 관성이 서로 연결되면서 문명사적 난제의 복잡성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맞닥뜨린 유례없는 문명사적 위기.

그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선 지구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세상 정치(politics of the world)의 대응만으론 역부족입니다.

개별 시민, 세계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희학원의 역사와 전통

경희학원이 원자과학자협회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분절된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 과학과 윤리, 문명과 평화가 서로 맞물린 실존의 과업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의식은 경희학원 설립 초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요청한다.”

1949년부터 설립의 초석을 놓기 시작한 경희학원은 세계대전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출범했습니다.

그 시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의 치열했던 무력 충돌의 역사.

절망적 역사의 파고를 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화세계를 꿈꿨습니다.

인류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염원했습니다.

드넓고 자유로운 학문의 세계.

그 세계는 현실에 귀속된 학문만이 아닙니다.

상상과 지성의 열린 가능성을 펼치는 대안 세계를 말합니다.

양심이란 화두도 유사한 맥락에서 비롯됐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내면의 심연을 깊이 성찰하는 인간 의식의 길.

자신과 타자, 자연과 문명의 조화와 결맞음을 일궈내는 인간적 가치의 향로(向路).

“문화세계 창조”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주 내 인간 존재의 초월적 역량과 미래의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간 의식과 양심의 변환(變換), 미래 공공선을 구현할 책임 정치의 가능성을 말해 왔습니다.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

인류의 미래를 향한 경희학원의 정신세계이자 공적 실천을 견인해 온 역사와 전통의 동력입니다.

전일적 실존의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선대가 볼 수 없었던 광활한 우주의 심연을 살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첨단 기술의 빠른 진전은 지구행성 사회의 시공을 초월한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 Quantum AI 시대를 머지않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의 출현 가능성은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우주 최소 기본 입자, 혹은 상태 연산을 가능하게 할 첨단 기술의 출현입니다.

미래는 상상을 초월한 문명의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신비.

복잡계 지구 행성의 기후와 생명 체계.

질병과 치유에 얽힌 깊은 인과의 고리...

그간 풀지 못했던 인류의 난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문명사적 기회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산업문명의 급진전.

문명의 ‘거대 가속’이 종전의 성장과 팽창 신화만을 재촉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더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초 단위로 재앙에 다가서는 오늘의 위기.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위대한 인류의 문명사적 유산을 지구상 존재의 공공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의 관성적 사유와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의 발견이 절실히 보입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원자과학자협회가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상호 연결의 지구 행성사회 맥락에서 찾는 일입니다.

통합적 사유의 지평을 펼치는 일입니다.

경희학원 설립 서사는 문명사적 난제 풀이의 단초를 주리(主理)와 주의(主意) 세계에서 찾았습니다.

심원한 자연의 이치가 지배하는 주리의 세계.

인간 의식과 실천 의지가 만들어 내는 주의의 세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자연의 이치와 인간 실존의 세계를 유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살피는 지혜의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문명과 세계를 분리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지하는 의식 내면의 원천을 향한 깊은 성찰입니다.

‘세계 내 모든 존재와 사건은 서로 연결돼 있다.’

‘상관상제(相關相制), 상관상승(相關相乘)의 우주적 기제를 통해 생성과 소멸, 궁극의 조화를 이루어 간다.’

‘인간 의식의 보편적 기저에 근접하려 노력할 때, 인류는 문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명제를 담아낸 전일적 실존과 공적 실천의 세계.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 경희의 역사이자 미래의 서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경희학원의 사상과 철학, 실천적 세계관에 맞닿아 있는 원자과학자협회를 미원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는 9월엔 미원평화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만남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